


제21대 강원 국회의원들이 오늘 선출된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벼랑끝 경제위기에 직면한 강원도내 경제인들은 이번 사태를 조기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당선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내 주요 경제단체장들에게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들었다.

“코로나19발 강원산업 전반의 위기극복 적극 나서주시기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지역의무 공동도급
법률적으로 확대를”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강원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한만큼 고용 효과와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SOC 건설투자 예산 확대와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도내 인프라 확충·신규사업 지속 발굴, 적정 공사비 확보·간접비 지급법 제화, 국가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지역 건설경기를 위한 정책·법률 조정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또 이를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내 건설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청한다.

 박승균 강원중소기업회장


“중복규제 해제 등
7개 과제 해결 기대”



한국 경제는 기존 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강원 중소기업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도내 기업인들이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내 각 정당에 강원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기초지자체 조례 제정·남북접경지역 발전저해 중복규제 해제 등 7개 과제를 발굴해 전달했다.

이제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강원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이미옥 여성경제인협 도지회장


“여성기업 전용
공제제도 마련을”



여성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창업은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소기업 비중이 높고 단순 생계형 업종에 편중돼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여성 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 여성기업인들은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를 꼽았다. 정책자금 확대와 저신용 소기업 위주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세금감면, 자금조달 및 보증 등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여성기업 전용 공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판매사업 등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시책이 시급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박경규 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


“경영안정자금 확대
세부담 완화 필요”



수령에 빠진 강원 경제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화합의 지혜가 있으면 한다. 급속도로 위축된 소상공인 및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성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자감면 및 채무상환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 장병 외출 통제로 마비된 집 경지역 상권 붕괴 및 지역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는 업종과 대상을 선별해 공적자금의 성격으로 집중 지원하길 기대한다. 위축된 경제 현실에 맞게 금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잠정 연기해야 한다.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 회장

“플라이강원 비뚤한
양양·원주공항 지원”



강원지역에서는 관광 활성화가 곧 경제 활성화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및 단체 여행 수요가 마비된 상황에서 내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각 관광지 및 휴게소, 안내센터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개별 관광객의 중심으로 역할할 수 있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하고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강원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등 하늘길을 활용한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을 기대한다. 관광업계 종사자를 포괄하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정리/김호석·권소담